

## 스페인어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NP]의 통사적 특성\*

곽재용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스페인어에서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NP]에 등장하는 양화사 'poco'에 대해 RAE(2014)는 '소량'의 의미를 갖는 남성 명사로 기술한다. 이러한 의사부분구조는 자신의 보어로 불가산 명사가 한정사의 동반 없이 등장한다. Gutiérrez Rodríguez(2008b)는 의사부분구조에서 어휘화된 양화 명사는 기능핵 Q의 핵 위치에 출현하지만, 단위명사, 도량 명사, 집합명사와 같은 양화 명사는 어휘핵 N의 위치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Gutiérrez Rodríguez(2008b)와 Sáez(2017)가 제안하는 양화사 관련 제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un poco de NP]에 등장하는 양화사 'poco'는 기능 범주인 OrP(Orientation Phrase)의 핵에 출현하고 부정관사는 상위의 또 다른 기능 범주인 DegP(Degree Phrase)의 핵에 출현하여 의사부분구조를 형성하는 한정사 성격의 복합 양화사로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의사부분구조, 양화사, 한정사, 소량의 의미, poco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들어가는 말

Real Academia Española(앞으로 RAE로 표기)(2014)에 따르면 오늘날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poco*’는 라틴어 ‘*paucus*’에서 비롯되었으며 기본적으로 (1)과 같은 부정 형용사(*adjetivo indefinido*), (2)와 같은 부정 대명사(*pronombre indefinido*), (3)과 같은 명사(*nombre*), (4)와 같은 부정 부사(*adverbio indefinido*) 총 4가지의 용법이 존재한다.

- (1) a. Pocos armarios.  
b. La poca agua que había.  
c. Poco peligro.  
d. Poca comida para la gente que había.
- (2) a. Ayer vino mucha gente, pero hoy ha venido poca.  
b. Ganaron pocos de los candidatos oficiales.  
c. No son pocos cien días para juzgar a un gobernante.  
d. Desgraciadamente, pocos creen en las soluciones a largo plazo.  
e. Comió poco.
- (3) a. Este poco de pan.  
b. Un poco de seriedad.
- (4) a. Es poco trabajador.  
b. Podemos salir porque llueve poco.  
c. Viene poco por aquí.  
d. Dormía poco  
e. Lo compré por poco menos de mil pesos.

RAE(2014)

RAE(2014)는 (1), (2), (4)에서 형용사, 대명사, 부사의 용법에서는 대부분 수(*número*), 양(*cantidad*) 또는 강도(*intensidad*)가 일반적인 것에 비해 희박한 경우나 맥락상 부족한 의미 표현에 사용되는 요소로 ‘*poco*’를 기술하지만, 명사의 용법으로 제시하는 (3)에 대해서는 ‘소량

(cantidad pequeña)’이라고 간결하게 기술하면서 형용사, 대명사, 부사의 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족’이나 ‘희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1)-(4)와 별도로 제시하는 기타 관용구의 소개 부분에서는 ‘un poco’를 대명사 관용구(locución pronominal)로 소개하고, (3)의 ‘poco’처럼 ‘소량’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다음 (5)와 같이 기술한다.

- (5) loc. pronom. Una cantidad pequeña. U. a menudo para referirse a un sintagma nominal mencionado o sobrentendido. *Estaba bebiendo leche y se le derramó un poco.*

(5)의 설명에 따르면, 예문 ‘*Estaba bebiendo leche y se le derramó un poco.*’에서 ‘un poco’는 선행하는 명사 *leche*의 의미에 기반하여 ‘소량의 우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b)의 ‘poco’와 (5)의 ‘un poco’는 의견상 동일하게 부정관사를 동반하면서 공통되게 ‘소량’이라는 의미적 특성을 갖지만, (5)에서 ‘poco’는 명사로 기능하지 못하며 ‘un poco’가 하나의 대명사 관용구로 간주하여 (3b)의 ‘poco’와는 품사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RAE(2014)는 기술한다. 한편, (2)의 ‘poco’와 (5)의 ‘un poco’는 공통적으로 대명사의 특성을 갖지만, 전자는 부족하거나 희박하다는 의미적 특성을 가지며, 후자는 소량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의미적 차이를 기술한다.

RAE(2014)가 제시하는 (1)-(5)의 내용에 기초하면, 스페인어 ‘poco’는 소량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명사이거나 대명사 관용구이거나 그 품사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부정관사 ‘un’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무관사 형태로는 ‘소량’을 의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RAE(2014)가 (2c)의 ‘poco’를 무관사 명사가 아니라 중성 부정 대명사(ponombre indefinido neutro)로 기술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에서 대명사 관용구 ‘un poco’가 지칭하는 것은 여성명사인 *leche*로 판단되지만, 자신이 지칭하는 명사의 성·수와는 일치관계를 갖지 않는다.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poco*’가 (3a,b)에서는 명사로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5)와 같은 경우에는 왜 맥락상 지칭하는 명사와 성·수 일치로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 소위 의사부분구조(construcción pseudopartitiva)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에 등장하는 ‘*poco*’는 중성 양화사인 ‘*un poco*’를 구성하는 불변화 양화사(cuantificador invariable)임을 증명하고 이와 관련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3a)와 같이 지시사에 후행하는 ‘*poco*’와 (3b)의 ‘*poco*’는 도출 구조상 동일한 기능 범주의 핵에 출현하며 동일하게 ‘소량’의 의미를 갖는 양화사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NP]의 일반적 특성

### 1.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NP]의 의미적 특성

RAE(2014)는 ‘*un poco*’에 대해 (5)와 같은 대명사 관용구 용법과 더불어 (6)과 같은 부사 관용구(locución adverbial)의 용법도 존재하는 것으로 소개한다. 앞서 살펴본 ‘*poco*’의 부사적 용법인 (4b,d)와 함께 예문을 비교해 보자.

- (6) a. Llueve un poco.
- b. Durmió un poco.
- (4b) Podemos salir porque llueve poco.
- (4d) Dormía poco.

(6a,b)와 (4b,d)에서 각각 양의 부사(adverbio de cantidad)로 기능하는 ‘*un poco*’와 ‘*poco*’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소량양화사(cuantificador



로 규정한다 (cf. Selkirk(1977), Escandell Vidal(1997), Brucart(1997), Bosque(1999), Rigau(1999, Sánchez López(1999), Leonetti(2007), Gutiérrez Rodríguez(2008b), Demonte & Pérez-Jiménez(2015)).

(10) a. un centenar de libros

b. un grupo de turistas

(11) a. algo de pan

b. un poco de agua

RAE & ASALE(2009:§20.2a)

RAE & ASALE(2009)는 (10a,b)과 (11a,b)를 모두 [N1 + de + N2]와 같은 유형의 의사부분구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구조에 N1으로 출현하는 요소는 (10a,b)와 같은 비한정적 명사, (11a,b)와 같은 양화사로 기술한다. 이러한 의사부분구조의 보어인 N2로는 (10a,b)와 같이 가산명사의 무관사 복수형이, 그리고 (11a,b)와 같이 물질명사(ex: *aceite, comida, fruta, luz, pan*)나 추상명사(ex: *cine, cordura, historia, orden, seriedad, tolerancia*)의 무관사 단수형이 출현한다고 제시한다.

의사부분구조에 등장하는 보어는 무관사 명사구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는다. 의미적 측면에서 (10a)의 경우는 ‘*cien libros*’와 유사하지만, 통사적 측면에서는 부분구조(*construcción partitiva*)(cf. Selkirk(1977), Brucart(1997))인 ‘*cien de los libros*’와는 구분되며 이러한 차이는 다음 (12a,b)와 같은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 a. un grupo de turistas (=10b) : 의사부분구조

b. un grupo de los turistas : 부분구조

(12a)와 (12b)는 [N1 + de + N2]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12b)와 같은 부분구조는 한정적 성격을 갖는 상위 집합인 N2의 일부나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표현이지만, (12a)와 같은 의사부분구조는 비한정

적이고 비지시적인 명사 N2의 수나 양을 의미한다(cf. Koptjevskaja-Tamm(2001:523), Rutkowski(2007: 337). 의사부분구조의 N2가 양화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만약 ‘*algo de*’와 ‘*un poco de*’를 직접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성격의 양화사로 간주한다면, (11a)는 ‘*poco pan*’, (11b)는 ‘*poca agua*’와 구조적으로는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을지라도, 의미적으로는 (9)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 2. 의사부분구조에서 중성 양화사로 기능하는 ‘*un poco*’

(9b)의 ‘*un poco de dinero*’와 (11b)의 ‘*un poco de agua*’에서 보듯이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의사부분구조 [N1 + de + N2]를 형성하는 N1과 N2간에는 성·수 일치 관계가 없다. 비록 예전에는 다음 (13)과 같은 용례들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스페인어 구어 등에서 일부 관찰되는 ‘*una poca de leche*’, ‘*unos pocos de problemas*’, ‘*unas pocas de veces*’ 등의 표현이나 가산명사의 무관사 복수형이 N2로 등장하는 ‘*un poco de ideas*’<sup>1)</sup>와 같은 표현은 모두 변이형으로 간주된다.

- (13) a. una poca de miel  
 b. una poca de estopa  
 c. una poca de conserva

RAE & ASALE(2009:§20.2m)

1) RAE & ASALE(2009:§12.2d, §20.2o)는 본유적으로 복수인 경우는 불가산 명사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인 명사의 복수형과 구분하고 있다. 다음은 본유적으로 복수형이 사용되는 명사가 등장하는 예시이다.

- (i) a. Comentó que sentía un poco de celos de Nicolau Casaus.  
 b. Hasta ahora no había encontrado lo único que necesitaba: un poco de entrañas y de compasión de parte de los que tenían en su mano la llave del remedio.

Rigau(1999:335)는 ‘*un poco de*’, ‘*algo de*’, ‘*nada de*’를 불가산 명사만을 보어로 취하는 양화사로 제시한다. Sánchez López(1999:1058)도 이러한 양화 표현의 보어는 반드시 비한정적이며 불가산 명사 단수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Rigau(1999)는 전치사 ‘*de*’가 포함된 형태가 의사부분구조를 형성하는 양화사의 구성소로 포함하지만 Bosque(1999:12)는 전치사 ‘*de*’를 포함하지 않은 ‘*un poco*’와 ‘*algo*’를 중성 양화사(*cuantificador neutro*)라고 제시한다.

다음은 RAE(2014)가 의사부분구조를 형성하는 ‘*algo*’와 ‘*nada*’에 대해 기술하는 내용이다.

(14) *nada*

pron. indef. n. sing. Ninguna cantidad o ninguna porción. U. a menudo con un complemento con la preposición *de*, normalmente seguida de nombres no contables. *No comió nada de pan.*

(15) *algo*

pron. indef. n. Denota una cantidad pequeña e indeterminada de alguna magnitud. *Apostemos algo. Falta algo para llegar a la ciudad.* U. a menudo con un complemento con la preposición *de*, normalmente seguida de nombres no contables. *Aportó algo de cordura a la discusión.*

RAE(2014)

RAE & ASALE(2009:§20.2b)는 (14)와 (15)에서 제시된 ‘*algo*’와 ‘*nada*’를 의사부분구조에 등장하는 중성 대명사로 기술하면서 전치사 ‘*de*’는, Rigau(1999)와 달리, 의사부분구조를 형성하는 구성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Bosque(1999)가 ‘*un poco*’를 ‘*algo*’와 동일하게 중성 양화사로 규정하는 것은 (14)와 (15)의 내용처럼 의사부분구조에 참여하는 ‘*nada*’와 ‘*algo*’가 갖는 중성 대명사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RAE(2014)는 의사부분구조에 출현하는 ‘*nada*’와 ‘*algo*’는 (14)-(15)에서 보듯이 중성 대명사라고 규정하지만, 이 요소들처럼 의사부분구조에 등장하는 ‘*un poco*’에 대해서는 중성이라는 언급은 없이 범주적 측면에서 대명사 범주로만 동일하게 간주한다. 이렇게 대명사 범주로 위의 3개 양화사를 동일하게 간주하면서도 ‘*un poco*’만 중성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스페인어에는 중성 대명사는 존재하지만 중성 명사는 없다는 점이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3a)에서는 부정관사 남성형, 그리고 (3b)에서는 지시형용사 남성형이 각각 명사 ‘*poco*’를 수식하는 특성에 따라 ‘*poco*’를 남성 명사로 판단하지만, (5)에서만 특별히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중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16a,b)의 현상을 통해 대명사 관용구 ‘*un poco*’는 복수화가 가능하다고 보아 불변화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페인어에서 중성 대명사의 복수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중성 대명사의 복수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5)와 달리 (16a,b)는 의사부분구조와 관련이 없다. 그 이유는 ‘*unos pocos*’는 (16a)에서 선행하는 명사와 성·수의 일치를 가지며 (16b)에서는 ‘*unas pocas personas*’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16) a. Tiene muchos discos pero solo ha escuchado unos pocos.  
 b. El mal comportamiento de unos pocos tiene consecuencias para todos.

RAE(2014)

의사부분구조에 등장하는 ‘*un poco*’는 (14)의 ‘*algo*’와 (15)의 ‘*nada*’와 다를 바 없이 보여와 성·수의 일치를 드러내지 않는 중성 양화사이다. (5)의 예문에서 보듯이, 의사부분구조를 형성하는 중성 양화사 ‘*un poco*’는 선행하는 명사의 소량을 언급하지만, 명사 자체를 대체하는 대명사 기능도 없으므로 선행하는 명사와 성·수의 일치를 보일 필요는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un poco*’는 선행하는 명사와의 불일치와 관련된 문제점도 제기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사부분구조에 참여하는 ‘*poco*’는 불변화 양화사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치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외견상 부정관사 ‘*un*’과 ‘*poco*’가 일치를 보이지만 ‘*un poco*’는 일반적인 명사구(ex: *un libro*)처럼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가 Bosque(1999)의 견해에 따라 ‘*un poco*’를 중성 양화사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poco*’나 ‘*un poco*’의 문법성이 중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양화사로 기능하는 ‘*un poco*’가 자신이 수식하는 보어의 성·수와 무관한 불변화사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un poco de NP*]의 이러한 기본적 특성에 입각하여, 다음 III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등장하는 부정관사와 양화사는 명사를 대체할 수도 없는 중성 대명사가 아니라 보어를 양화 수식하는 한정사이며 이러한 특성이 공범주를 인허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NP*]의 통사적 특성

#### 1. 복합 양화사 *un poco*의 통사적 실현

앞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사부분구조는 [*N1 + de + N2*]라는 기본적인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만약 Rigau(1999)처럼 의사부분구조에 등장하는 ‘*un poco de*’를 *mucho*나 *bastante*같이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단순 양화(cf. Selkirk(1977)) 기능의 형용사처럼 판단할 경우, 아래의 (17b)와 같은 분석 방식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RAE & ASALE(2009:§20.2f)는 (17b)보다 (17a)가 의사부분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더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그 이유로는 (18a)와 같은 등위 구조, (18b)와 같은 생략 구조, (18c)와 같이 양화사에 후행하는 수식어의 출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17) a. [[un poco] [de pan]]  
       b. [[un poco de] [pan]]
- (18) a. un poco de pan y de vino  
       b. Solo queda un poco ∅.  
       c. un poco más de pan

RAE & ASALE(2009:§20.2f)

RAE & ASALE(2009)가 의사부분구조의 생략 구조로 제시하는 (18b)는 RAE(2014)가 (5)를 통해 제시한 용법과 다르지 않다. Bosque(1999)는 (19)와 같은 의사부분구조에서 공범주 [∅]는 전치사구 ‘de leche’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 (19) Juan quiere un poco de leche y yo quiero otro poco [∅].

Bosque(1999:28)

본 연구는 ‘un poco’가 기능 범주에 출현하는 기능어의 특성을 가지므로 (19)와 같은 공범주를 인허하는 한정사의 성격을 갖는 중성 양화사로 분석하고자 이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부분구조 [N1 + de + N2]의 사례로는 앞 II장에서 ‘un poco’와 같은 중성 양화사가 출현하는 [un poco de NP] 외에 (10b) ‘un grupo de turistas’와 같이 집합명사가 출현하는 용례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용례인 (20c)를 포함하여 Bosque(1999)는 다음과 같이 의사부분구조의 N1에 출현하는 요소를 양화 명사로 규정하고 이를 총 3가지로 세분하여 소개한다.

- (20) a. un grano de uva : 단위명사(sustantivos acotadores)  
       b. un kilo de uva : 도량명사(sustantivos de medida)  
       c. un racimo de uvas : 집합명사(sustantivos de grupo)

Bosque(1999:18)

Gutiérrez Rodríguez(2008b:327)는 Bosque(1999)가 제안하는 (20)의 3가지 양화 명사의 유형과 더불어 다음 (21)과 같은 어휘화된 양화 명사도 의사부분구조에 등장하는 유형으로 포함한다.

(21) 어휘화된 양화 명사(nombres cuantificativos lexicalizados)

- I. 어원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양(cantidad)만을 의미하는 명사(un montón, la mar, la tira, un sinfín)
- II. 양화적 어휘 의미만을 가지는 명사((gran) cantidad, (gran) número o infinidad)

Gutiérrez Rodríguez(2008b:327)

Gutiérrez Rodríguez(2008b)는 앞 II장에서 살펴본 (10a)의 ‘*un centenar de libros*’와 같은 표현을 (21) 유형의 양화 명사가 사용된 의사부분구조로 보았다. 즉, 의사부분구조를 형성하는 N1으로는 (20)의 유형 뿐만 아니라 (21)과 같은 어휘화된 양화 명사도 가능하다.

스페인어에서는 명사 ‘*cantidad*’이 N1으로 등장하는 의사부분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poca / pequeña*}와 {*mucha / grande*}의 교호가 가능함을 관찰할 수 있다.

(22) a. La leche materna contiene poca cantidad de hierro pero su absorción es excelente.

b. Si usted bebe mucha cantidad de alcohol durante un tiempo prolongado probablemente vaya aumentando su tolerancia al alcohol.

(23) a. una pequeña cantidad de agua

b. una gran cantidad de material

RAE & ASALE(2009:§20.2p)

RAE & ASALE(2009:§20.2p)는 (22a)의 경우와 달리 (23a)처럼 부정관사를 동반하는 구조인 [una {*poca / pequeña*} cantidad de + NP]에서

는 ‘*pequeña*’가 더 선호되는 요소이며 문어체에서 더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스페인어 ‘*poco*’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RAE(2014)가 제시하는 바처럼 ‘부족’과 ‘희박’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2a)에서도 관찰되듯이 형용사 ‘*poco*’는 ‘소량’의 의미는 가질 수 없다.

(22)-(23)에서 명사 ‘*cantidad*’은 ‘양’이라는 어휘적 의미는 있지만 양이 많고 적음과 관련된 구체적 의미는 없다. 양의 ‘많음’과 ‘적음’의 의미는 (22)-(23)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형용사들이 각각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21.II)에 제시된 ‘(*gran*) *cantidad*’에 해당하는 용법은 (23b)와 같은 용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24)와 같이 무관사 명사로 아무런 수식어구가 없이 의사부분구조의 N2로 출현하는 경우, 어휘의 어원적 의미인 ‘양’을 상실하고 ‘다량’에 해당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용법을 의미한다.

(24) *cantidad*

f. Porción grande o abundancia. U. sin artículo, seguido de un complemento con *de* en el que el sustantivo no lleva determinante. *En la tienda hay cantidad de vestid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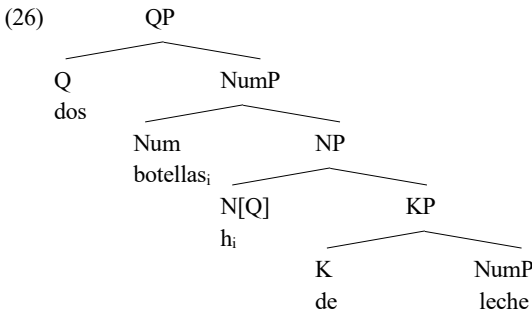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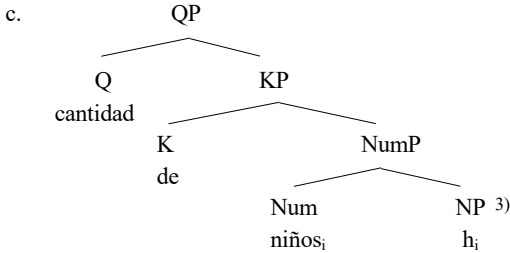
RAE(2014)

Gutiérrez Rodríguez(2008b)는 (20) 유형의 양화 명사와 (21) 유형의 양화 명사의 차이로 후자는 복수화가 불가능<sup>2)</sup>하다고 주장한다(cf. San Julián Solana(2018:277)). 즉, (25a)와 같은 문장은 (25c)와 같은 도출 구조를 가지므로, (25b)와 같이 양화 명사의 복수형은 기대할 수 없다. Gutiérrez Rodríguez(2008b:382-384)는 의사부분구조의 N1이 복수화가

2) RAE(2014)는 ‘*montón*’의 기술에서 ‘*montones*’와 동일한 의미로 기술하지만 Gutiérrez Rodríguez(2008b: 384)는 ‘*montones*’는 ‘*montón*’의 복수형이 아니며 (24)의 ‘*cantidad*’과 같이 별도로 어휘화된 명사로 보았다.

가능한 경우(cf. (20))는 다음 (26)과 같은 다른 도출 구조를 제안한다.

- (25) a. Cantidad de niños esperaban en la puerta.  
 b. \*Cantidades de niños esperaban en la puerta.



(26)은 양화사의 복수화와 관련된 NumP가 투사되지만 (25c)에서는 양화사의 복수화와 관련되는 NumP의 투사가 없다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Gutiérrez Rodríguez(2008b)는 (20) 유형은 (26)과 같이 본연의 명사적 성격에 따라 N1의 위치에 출현하여 이후 LF(Logical Form)에서 QP의 핵으로 이동하여 [Q]자질 점검을 통해 양화 명사임을 확인하는 기제를 갖지만, (21)과 같은 어휘화된 양화 명사는 (25c)처럼 QP의 핵 위치에 바로 등장하는 차이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주지하다시피 (25a)

3) 약어 설명: QP(= Quantification Phrase), NumP(= Number Phrase), KP(= Case Phrase), NP(= Noun Phrase)

의 ‘*cantidad*’과 마찬가지로 ‘*un poco*’는 복수화가 불가능하다.<sup>4)</sup> 따라서 (26)과 같이 복수화가 가능한 구조는 ‘*poco*’의 출현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25c)가 보다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un poco*’ 역시 (25c)의 ‘*cantidad*’처럼 어휘화된 양화 명사의 특성을 가지면서 Q의 위치에 단일어처럼 생성되는 것일까?

Sáez(2017:65-67)는, 다음 (27)-(28)과 같이 이탈리아어 감탄문에 대한 Zanuttini & Portner(2003)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페인어 감탄문 (29a,b)의 도출 구조를 (30)과 같이 제안한다.

- (27) a. Che tant-i libr-i!  
       how so.many-MASC.PL book-MASC.PL  
       b. che t- anti libri  
       c. WH E-ONLY MEASURE SORTAL
- (28) a. Che alt-o!  
       how tall-MASC.SG  
       b. Che € + Ø alto  
       c. WH E-ONLY + MEASURE SORTAL
- (29) a. ¡Qué alto!  
       b. ¡Qué poco alto!
- (30) [DegP qué [Deg € [OrP (poco) [QP [Q Ø] [AP alto]]]]
- Sáez(2017:62, 65-66)

Zanuttini & Portner(2003)는 (27)의 이탈리아어 감탄문에서 ‘*tanti*’는 감탄문에서만 작용하는(E-ONLY = Exclamative-ONLY) 형태소 ‘*t-*’와 척도(MEASURE)의 의미를 갖는 구성소 ‘*-anti*’로 이루어졌으며, (28)과 같은 감탄문의 도출에서는 E-ONLY와 MEASURE에 해당하는 형태소

4) (25a)와 달리 (23a,b)에 출현하는 ‘*cantidad*’은 (26)과 같은 도출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예들에서 보듯이 복수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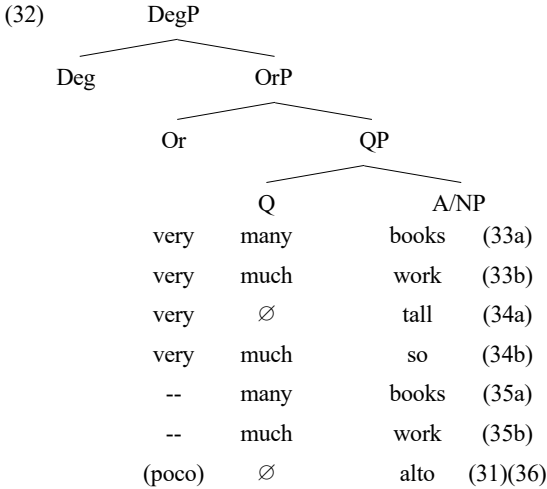
(i) a. tráfico de grandes cantidades de drogas duras  
       b. escasas o pequeñas cantidades de droga

는 ‘ $\epsilon$ ’와 ‘ $\emptyset$ ’로 각각 비외현적 문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30)에서 ‘*poco*’는 Or(ientation)(cf. Pastor(2008))이라는 기능 범주의 핵 위치에 등장하는데, 이 기능 범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해석 극성의 정도(degree polarity)와 관련이 있는 범주로 가정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1) a. Él es muy alto.
- b. Él es muy poco alto.

(31b)의 ‘*muy*’는 Deg 핵에 삽입되면 표준 키에 훨씬 못미치는(“much under the standard of tallness”) 해석이 이루어지며 이때 ‘*poco*’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운용자로서 정도 하강의 해석을 유도하지만, (31a)에서는 표준 키를 훨씬 상회하는(“much over the standard of tallness”) 해석을 가지며 긍정적 의미를 갖는 영 운용자(null positive operator)가 ‘*poco*’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Sácz(2017)는 (30)의 경우 ‘ $\emptyset$ ’과 ‘*poco*’가 Q와 Or의 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 $\epsilon$ ’는 Deg의 핵으로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험적 배경은 (31)과 같이 스페인어의 ‘*poco*’와 ‘*muy*’가 보여주는 분포적 특성 때문이다. 영어의 ‘*very*’는 Or의 핵 위치이지만 스페인어의 ‘*muy*’는 Deg의 핵 위치라는 Sácz(2017)의 주장은 (31) 예문의 특성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



(33) a. How very many books!

b. How very much work!

(34) a. How very ∅ tall!

b. How very much so!

(35) a. He bought many books.

b. Much work is necessary.

(36) a. Él es al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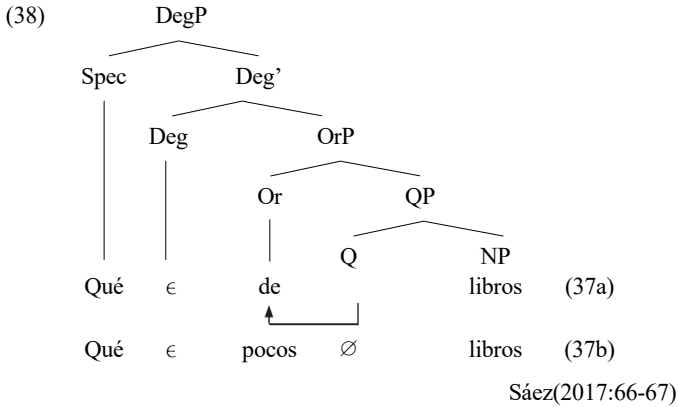
b. Es poco alto.

Sáez(2017:57-61)

이러한 ‘*poco*’의 특성에 기반하여 Sáez(2017)는 (37a,b)의 도출 구조를 (38)과 같이 제안한다.

(37) a. ¡Qué de libros!

b. ¡Qué (\*de) pocos libros!



Sáez(2017)는 (37a)와 같은 구문에 출현하는 전치사 ‘de’는 긍정적 해석을 유도하는 요소로 영어의 ‘many/much’처럼 Q에서 생성되어 Or로 이동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37b)에서 ‘poco’와 전치사 ‘de’가 공기할 수 없는 이유는 Or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즉, (37a)와 같은 용법은 긍정적 해석, 즉 일종의 ‘다량’과 관련된 해석(cf. RAE(2005)<sup>5)</sup>)이므로 해석상으로 극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poco’와 같은 다른 극성의 요소들과 공기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본 연구는 Sáez(2017)가 (38)을 통해 제안하는 ‘poco’의 통사적 특성을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주제인 [un poco de NP]의 경우 전치사 ‘de’는 의사부분구조의 속격 전치사<sup>6)</sup>이므로 속격 전치사가 실현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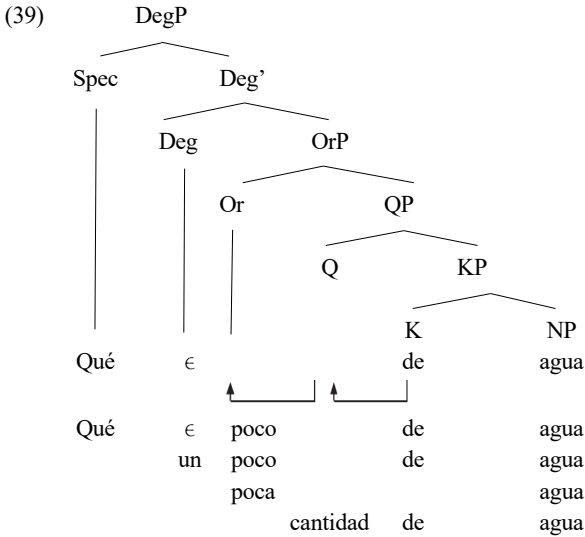
5) RAE(2005)는 이와 같은 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En construcciones exclamativas, seguido de la preposición de y un sustantivo, sirve para ponderar la cantidad, con sentido equivalente a cuánto: «¿Qué de risitas y de guiños tuviste que soportar!»”

6) Gutiérrez Rodríguez(2008b) 전치사 ‘de’는 부분구조에 등장하는 경우와 의사부분구조에 등장하는 경우에 차이를 두고 전자의 구조에 등장하는 경우는 부분격 전치사로 등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의미적 내용을 결여하는 속격 전치사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i) a. De patatas, traje {un kilo/una caja}

b. \*De patatas, compró {un montón/una barbaridad/infinidad}

범주는 Gutiérrez Rodríguez(2008b)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KP에서 실현된다고 본다.



- c. Patatas, compró {un montón/una barbaridad/infinidad}
- (ii) a. \*De café, bebió un poco.
- b. Café, bebió un poco.

Gutiérrez Rodríguez(2008b:385-386)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보어를 인허하는 격표시자이므로 (20) 유형의 양화 명사는 (26)과 같은 구조에서 N의 핵에 출현하기 때문에 위 (ia)에서 보듯이 전치사의 등장이 필요하지만 (ic)처럼 (21)에 해당하는 어휘화된 명사가 의사부분구조의 N1에 등장하는 문장이 화제화가 이루어진 경우 문두에 출현하는 보어는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Gutiérrez Rodríguez는 어휘화된 명사는 실질적으로 양화사이며, 속격 전치사는 주제화에서 사라진다고 보았다. 한편 Gutiérrez Rodríguez(2008b:205)는 'un poco'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un poco'의 경우 부정관사 'un'은 D의 핵 위치에, 그리고 양화사 'poco'는 Q(그의 연구에서는 Cu)에 출현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No hemos ofrecido un análisis para estos dos cuantificadores complejos [un poco y unos pocos], pero una explicación posible, que no vamos a desarrollar aquí, es que se hayan formado por incorporación de un núcleo D y un núcleo Cu.". 이러한 언급은 (39)의 구조를 제안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를 갖는다.

- (40) a. un poco de agua  
 b. ¡Qué de agua!
- (41) a. ¡Qué poco de agua que tiene el mar!  
 b. ¡Qué cantidad de agua que tiene el mar!  
 c. ¡Qué gran cantidad de agua que tiene el mar!  
 d. ¡Qué poco de plata!  
 e. ¡Qué poco de artistas!  
 f. ¡Qué poco de dosis!<sup>7)</sup>

감탄문인 (40b)의 경우 DegP의 지정어 위치에는 ‘Qué’, 그리고 핵의 위치에는 ‘ε’가 실현되며,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NP]를 갖는 (40a)의 경우에는 ‘poco’가 Or의 핵 위치에 실현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39)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Sáez(2017)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정도와 양을 의미하는 구성소들은 각각 다른 기능 범주에서 실현된다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NP]에서 부정 관사는 양화와는 관계가 없는 요소이지만 긍정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하는 필수적인 출현 요소이므로 Deg의 핵 위치에 출현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안은 Sánchez López(1999:1099)가 ‘un poco’와 ‘poco’의 의미적 극성 차이를 화용적 단계의 차이로 판단하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39)는 (40b)와 같은 감탄문과 더불어, 비록 전 스페인어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은 아니지만, (41a)와 같이 부정적 해석의 운용자로 기능하는 ‘poco’가 전치사 ‘de’와 공기하는 구조(cf. (41a,d-f))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아

7) (41)의 예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41a-c): Ramírez Bravo, R.(2016), “Las voces *limpio* y *poco* en el habla sur Andina de Nariño, Colombia”, *Revista Folios*, 43, enero-junio, 103-117

(41d): <<https://www.eluniversal.com.co/farandula/2023/08/30/que-poco-de-plata-esto-le-habria-costado-a-shakira-los-retoques-esteticos/>>

(41e): <<https://www.diarioextra.com/Noticia/detalle/17177/que-poco-de-artistas>>

(41f): <<https://www.minuto30.com/sujeto-dosis-marihuana-bello/1066705/>>

올리 Gutiérrez Rodríguez(2008b)가 제안하는 (21) 유형의 양화 명사 ‘*cantidad*’은 (39)에서 보듯이 Q 위치에 출현하지만, [un poco de NP]의 ‘*poco*’는 양화 명사가 아니라 양화사라는 기능어의 특성을 가지므로 Or에서, 그리고 부정관사 ‘*un*’은 Deg의 핵 위치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21)의 어휘화된 양화 명사 출현환경과 양화사 ‘*poco*’의 출현환경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안은 (41c)에서 양화 명사 ‘*cantidad*’을 수식하는 형용사 ‘*gran(de)*’의 경우 QP의 지정어 위치에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3a)에 출현하는 지시형용사도 QP의 지정어 위치에 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지시형용사는, 부정관사도 그렇듯이, 양화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39)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어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3a) Este poco de pan.

RAE(2014)는 (3a) ‘*poco*’가 소량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3a)의 ‘*poco*’는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 NP]의 ‘*poco*’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부분구조 [N1 + de + N2]를 다루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N1이 부정관사를 동반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정관사나 지시형용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의사부분구조로 간주하지 않는다(cf. Demonte & Pérez-Jiménez(2015); RAE & ASALE(2009:§20.2h, 20.2i); Rigau(1999)).

(42) a. esta ristra de ajos  
b. el manojo de espárragos

Rigau(1999:339)

(42)가 양화성을 갖는 의사부분구조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는 N1으로 기능하는 ‘*ristra*’와 ‘*manejo*’가 (20)의 유형에 해당하는 양화 명사이

지만 (26)처럼 N에서 실현되는 양화 명사가 아니라 지시성을 갖는 일반 명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3a)의 ‘*poco*’는 (20)과 (21)의 유형에 속하지 않으며 (39)에서처럼 기능핵 Or에서 실현되는 양화사이므로 ‘*una pequeña cantidad de pan como esta*’와 같이 소량의 정도(*paucidad*)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시사는 정관사와 다르지 않은 한정성을 갖지만 (3a)는 지시성(*referencialidad*)을 갖는 명사를 수식하는 지시사가 아니라 불가산 명사 ‘*poco*’의 추상적인 의미 ‘소량’의 정도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작용한다.<sup>9)</sup> (3a)의 ‘*este*’는 형태적으로 지시형용사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빵의 소량인지는 지칭하지 않는다. 화용적 측면에서도 화자가 특정 빵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없으며, 명사구 전체에서 지시사의 직시적 의미는 보어(N2)인 빵보다는 ‘소량’과 관련이 있다.<sup>10)</sup> 지시형용사와 부정관사가 동일한 Deg의 핵 위치에 등장하

8) 양화 명사가 일반 명사로 기능하는 현상은 다음 III.2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9) 이러한 지시형용사의 용법은 Bresnan(1973)과 Corver(1997)이 언급하는 ‘*demonstrative degree*’(ex: that little bread)에 가깝다고 본다. Bresnan(1973)은 정도와 관련된 지시사는 QP의 지정어에 생성된다고 보았으며, Corver(1997)는 Deg가 QP를 선택하는 구조로 보고 Deg 핵 위치에 지시사가 출현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39) 구조에서 Deg의 핵 위치에 지시형용사와 부정관사가 동일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이들 요소의 분포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양화사를 수식하는 지시사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의미적-통사적 특성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0) 부분구조와 의사부분구조간의 의미적 차이가 크지 않으면 두 구조를 혼용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어 성경(개역개정) ‘사무엘 상 14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다.

(i)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위 표현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paululum de melle isto*’으로 표현된다. 양화사 ‘*paululum*’과 함께 탈격 전치사 ‘*de*’가 사용되어 중성명사 ‘*mel*’의 단수 탈격형인 ‘*melle*’이 사용되었고 지시형용사 역시 중성 단수 탈격형이 사용되었다. 이 라틴어 구조는 지시사가 중성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축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어와 스페인어 번역 성경에서 부분구조로의 번역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의사부분구조로 번역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i) 부분구조(*un poco de esta miel*)를 사용하는 스페인어 성경

: La Biblia de las Américas, Biblia del Jubileo, Dios Habla Hoy, Nueva Biblia de las Américas, Nueva Versión Internacional, Nueva Versión

므로 ‘*poco*’는 홀로 사용되는 부정적 해석의 양화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a)와 (3b)에서는 ‘*poco*’가 모두 소량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3a)는 한정성을 갖는 지시사가 출현<sup>11)</sup>하므로 의사부분구조로는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어 의사부분구조를 형성하는 양화사 ‘*un poco*’는 두 개의 기능 범주 연속체 Deg-Or의 각 기능핵에서 구현되는 복합 형태의 양화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

Internacional (Castilian), Reina Valera Actualizada (RVA-2015), Reina-Valera 1960, Reina Valera Revisada, Reina-Valera 1995, Reina-Valera Antigua, Spanish Blue Red and Gold Letter Edition

(ii) 의사부분구조(*un poco de miel*)를 사용하는 스페인어 성경

: Nueva Traducción Viviente, Palabra de Dios para Todos, La Palabra (España), La Palabra (Hispanoamérica), Reina Valera Contemporánea, Traducción en lenguaje actual (TLA)

출처: <<https://www.biblegateway.com/>>

특이한 점으로 다른 모든 버전과 달리 유일하게 Nueva Biblia Viva에서는 ‘*este poco de miel*’과 같이 지시형용사가 ‘*poco*’에 선행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영어 성경의 경우는 21st Century King James Version을 비롯해 총 46개 버전이 ‘*a little of this honey*’와 같은 부분구조를 사용한다. 스페인어 성경인 Nueva Biblia Viva처럼 N1 앞에 지시형용사가 출현하는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Living Bible(*this little bit of honey*), New American Bible(*this little taste of honey*), New Living Translation(*this little bit of honey*)가 있다. 나머지 다른 경우들로는 Common English Bible(*a bit of that honey*), Easy English Bible(*a little bit of honey*), Good News Translation(*some honey*),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a little honey*), New Catholic Bible(*a little bit of this honey*), Orthodox Jewish Bible(*a little of this devash*), The Voice(*the honey*) 등 조금씩 다른 구조와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 성경과 스페인어 성경에서 ‘이 꿀 조금’의 표현은 다수의 경우에서 양화사의 선행위치에 지시형용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분구조와 의사부분구조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일한 의미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11) 한정성이라는 지시사 본연의 특성으로 인해 (3a)의 ‘*este*’는 DegP의 상위에 투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DP 또는 Dem(onstrative)P로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poco*’의 양화사로의 특성 분석에 중점을 두며 지시사와 관련된 추가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2. 생략 구문과 관련된 특성

Vos(1999)는 ‘*un montón de libros*’와 같은 표현에서 ‘*un montón*’이 ‘다량’을 의미하는지 물리적 대상인 ‘더미’를 의미하는지 모호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 만약 ‘다량’을 의미한다면 지시성이 없는 의사부분구조의 양화 명사의 특성(cf. Gutiérrez Rodríguez(2008b))을 갖지만, ‘더미’와 같이 물리적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는 어휘 명사라고 판단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3) a. *un montón de libros y un montón de revistas*
- b. *un montón de libros y uno - de revistas*

Vos(1999:272)

(43b)에서 ‘*montón*’은 첫 번째 접속구에서는 외현적으로 실현되었고 두 번째 접속구에서는 비외현적으로 실현되었다. Vos(1999)는 (43b)의 두 번째 접속사구에서 비외현적으로 실현된 N1은 양화 명사가 아닌 지시성을 갖는 명사인 ‘더미’로만 해석되며, 양화 명사의 해석이 없다고 설명한다. (43a,b)가 시사하는 점은 논항으로 기능하는 일반적인 명사와 달리 (21) 유형의 ‘*montón*’은 Q에 출현하며 Deg의 한정사와 함께 2개의 구성소가 동시에 문자화가 이루어지는 복합 양화사이므로 이 복합 양화사를 구성하는 2개의 구성소들 중 한 구성소(‘*un*’)가 다른 구성소(‘*montón*’)의 생략을 인허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확인시켜 준다고 본다.

스페인어는 ‘*cada*’와 ‘*cierto*’를 제외한 모든 한정사가 기본적으로 공범주를 인허하는 특성(cf. Gutiérrez Rodríguez(2008a: 299))이 있지만 양화 명사는 한정사를 통하여 생략 부분, 즉 공범주를 인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명사와 양화 명사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앞에서 제시한 (19)에서 ‘*otro*’가 아닌 ‘*otro poco*’가

한정사의 성격으로 공범주를 인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Juan quiere un poco de leche y yo quiero otro poco [∅].

Leonetti(1999:846)는 의사부분구조를 형성하는 ‘un poco’의 부정관사는 ‘un’은 적절한 조건하에서 ‘otro’로 바뀌어 쓸 수 있다고 한다. (19)에서 보듯이 ‘otro’는 양화와는 무관한 요소이다. 앞 III.1절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un poco’의 부정관사 ‘un’은 수나 양과 관련된 양화사가 아니라 ‘소량’의 긍정적 해석의 극성 정도와 관련하여 Deg의 핵에 등장하는 요소이다. (19)는 ‘Juan은 우유를 조금 마시고 싶어하며 나도 조금 마시고 싶다’의 의미이며, ‘Juan은 우유를 조금 마시고 싶어하며 나는 그가 마시고 싶어하는 소량의 우유가 아닌 다른 소량(의 우유)을 조금 마시고 싶다’는 의미는 결코 가질 수 없다. 아울러 (19)의 ‘un poco de leche’에서 ‘leche’는 화자나 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지시 대상이 아니다. (19)의 ‘otro poco’의 ‘otro’는 ‘un poco’의 ‘un’과 다르지 않게 Deg에 등장하는 요소이며 문체적 요인이 반영되어 구현되는 요소다. 이렇게 문체적인 이유로 바뀌어쓰는 용법은 (4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4) a. La reforma laboral de la Ley Bases tiene un poco de los 90  
y otro poco de Macri.<sup>12)</sup>  
b. Con un poco de imaginación y otro poco de fantasía<sup>13)</sup>  
c. Un poco de dormir, otro poco de dormir, Otro poco de  
cruzar las manos para descansa.<sup>14)</sup>

12) 예문 출처:

<<https://canalabierto.com.ar/2024/05/03/la-reforma-laboral-de-la-ley-bases-tiene-un-poco-de-los-90-y-otro-poco-de-macri/>>

13) 예문 출처:

<<https://tytl.com.pe/con-un-poco-de-imaginacion-y-otro-poco-de-fantasia/?sktbuilder=true>>

14) 예문 출처:

(44)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otro poco*’ 역시 Deg와 Or의 핵 위치에 ‘*otro*’와 ‘*poco*’가 각각 등장하는 양화사이며 (19)에서는 ‘*otro poco*’는 공범주를 인허할 수 있는 한정사의 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맺는말

본 연구는 의사부분구조 [un poco de NP]에 등장하는 양화사 ‘*poco*’는 OrP의 핵에 출현하며, ‘소량’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Deg의 핵 위치에서 부정관사 ‘*un*’이 외현적으로 문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의사부분구조에서 ‘*un poco*’는 양화 명사가 아니라(cf. Bosque(1999), Gutiérrez Rodríguez(2008b)) 기능 범주에 출현하는 복합 양화사이자 한정사의 특성을 가지므로 자신의 보어로 등장할 수 있는 요소가 해당 위치에서 공범주로 실현되는 경우 이를 인허하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장점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참고문헌

- Bosque, I.(1999), “El nombre común”,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3-76.
- Bresnan, J.(1973), “Syntax of the comparative clause construction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4. 275-343.
- Brucart, J. M.(1997), “Concordancia ad sensum y partitividad en español”, in M. Almeida & J. Dorta(eds.), *Contribuciones al estudio de la lingüística hispánica. Homenaje al profesor Ramon Trujillo*, Tenerife: Montesinos, vol.1, 157-183.
- Corver, N.(1997), “Much-support as a last resort”, *Linguistic Inquiry*, 28, 119-164.
- Demonte, V. & I. Pérez-Jiménez(2015), “Construcciones partitivas y pseudopartitivas en español: concordancia híbrida y variación en la interficie sintaxis-semántica”, in E. Hernández & P.M. Butragueño(eds.), *Variación y diversidad lingüística. Hacia una teoría convergente*, México D. F.: El Colegio de México, 15-98.
- Escandell Vidal, M.V.(1997), *Los complementos del nombre*, (2nd ed), Madrid: Arco/Libros.
- Gutiérrez Rodríguez, E.(2008a), “Rasgos categoriales de los determinantes”, *Actas del XXXVII Simposio Internacional de la Sociedad Española de Lingüística*, Pamplona, Universidad de Navarra, 297-309.
- Gutiérrez Rodríguez, E.(2008b), *Rasgos gramaticales de los cuantificadores débiles*, Ph.D Dissertation, Madrid: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Koptjevskaja-Tamm, M.(2001), “‘A piece of the cake’ and ‘a cup of tea’: Partitive and pseudo-partitive nominal constructions in the

- Circum-Baltic Languages”, in Dahl. Ö. & M. Koptjevskaja-Tamm(eds.), *The Circum-Baltic languages*, vol. 2, Amsterdam: Benjamins, 523-568.
- Kovacci, O(1999), “El adverbio”,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705-786.
- Leonetti, M.(1999), “El artículo”,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787-890.
- Leonetti, M.(2007), *Los cuantificadores*, Madrid: Arco/Libros.
- Pastor, A.(2008), “Split analysis of gradable adjectives in Spanish”, *Probus*, 20, 257-300.
- Real Academia Española(2005),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 <<https://www.rae.es/dpd/>> (검색일: 2024.08.31.)
- \_\_\_\_\_ (2014),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23.<sup>a</sup> ed., <<https://dle.rae.es>> (검색일: 2024.08.31.)
- \_\_\_\_\_ &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 Rigau, G.(1999), “La estructura del sintagma nominal: Los modificadores del nombre”,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311-362.
- Rutkowski, P.(2007), “The Syntactic Structure of Grammaticalized Partitives (Pseudo-partitives)”, in T. Scheffler, J. Tauberer, A. Eilam & L. Mayol(eds.),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3.1: *Proceedings of PLC 30*, Philadelphia: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337-350.
- Sáez, L.(2017), “Más-Support”, in Ignacio Bosque(ed.), *Advances in the analysis of Spanish exclamatives*, The Columbus(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53-81.

Sánchez López, C.(1999), “Los cuantificadores: Clases de cuantificadores y estructuras cuantificativas”,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1025-1128.

San Julián Solana, J.(2018), “La heterogeneidad estructural de las pseudopartitivas en español”, *Círculo de Lingüística Aplicada a la Comunicación*, 75, 261-286.

Selkirk, E.O.(1977), “Some Remarks on Noun Phrase Structure”, in P.W. Culicover *et al.*(eds.),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285-316.

Vos, R.(1999), *A Grammar of Partitive 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TILDIL, University of Tilburg.

Zanuttini, R., & Portner, P. H.(2003), “Exclamative clauses at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Language*, 79, 39-81.

❖ ABSTRACT

Syntactic properties of the Spanish  
pseudo-partitive construction [un poco de NP]

Kwak, Jaeyo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AE(2014) describes the quantifier ‘*poco*’ used in the pseudo-partitive construction [un poco de NP] as a masculine noun, translating to ‘a small amount’ in Spanish. This construction pairs an uncountable noun, without an overt determiner, as its complement. Gutiérrez Rodríguez (2008b) contends that in pseudo-partitive constructions, lexicalized quantifier nouns occupy the functional head position Q, contrasting with quantifier nouns like counters, measure nouns, and collective nouns, which occupy the lexical head N.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quantifier proposals by Gutiérrez Rodríguez(2008b) and Sáez(2017), proposing that the quantifier ‘*poco*’ in [un poco de NP] resides in the head of the functional category OrP(Orientation Phrase). It also posits that the indefinite article appears in the head of another functional category, DegP(Degree Phrase), thus forming a pseudo-partitive construction that functions as a determiner-like complex quantifier.

Keywords: pseudo-partitive construction, quantifier, determiner, meaning of ‘a small amount’, *poco*

■ 논문투고일 : 2024. 09. 08

■ 심사완료일 : 2024. 10. 02

■ 게재확정일 : 2024. 10. 11